

# 한국 노인의 생활세계 구성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김 주 현

## 1. 연구 배경 및 목적

노령인구의 증가가 갖고 있는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적극적 노년'(Active ag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 고자 시도하고 있다. '적극적 노년'이란 일정 연령 이후 인구 집단을 자동적으로 사회생활로 부터 은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여 노령 인구의 노 동 참여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각국의 정부는 이를 가능 케 하는 정책 수단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회 UN 세계고령화 회의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하는 세계 각 국이 모여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고령자 집단의 새로운 모습을 논의하였다. 고령자의 독립성, 긍정적 노화, 고령 자의 고유성 등 과거와는 다른 역동적 고령 세대를 조명하고 있다. 1999년 EU는 활동적인 노 화의 5가지 요소로서, 보다 오래 일하기, 퇴직 시기를 늦추기, 퇴직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활 동하기, 건강을 지탱하는 활동에 계속 관여하기, 가능한 한 독립적이 되기를 제안했다(이가 옥, 2004 재인용). 그리고, 세계에서 대표적인 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경우, 90년대 중반 신골 드플랜이 마련된 이후 노인을 제2의 현역세대로 규정하고 보다 자유롭게 생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긍정적인 노인상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1998년 미국은퇴자협회(AARP) 의 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5명 중 4명은 은퇴 이후에도 일정 형태의 유급노동에 머무르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1/3이상은 은퇴 이후에도 이익을 위해서 또는 즐거움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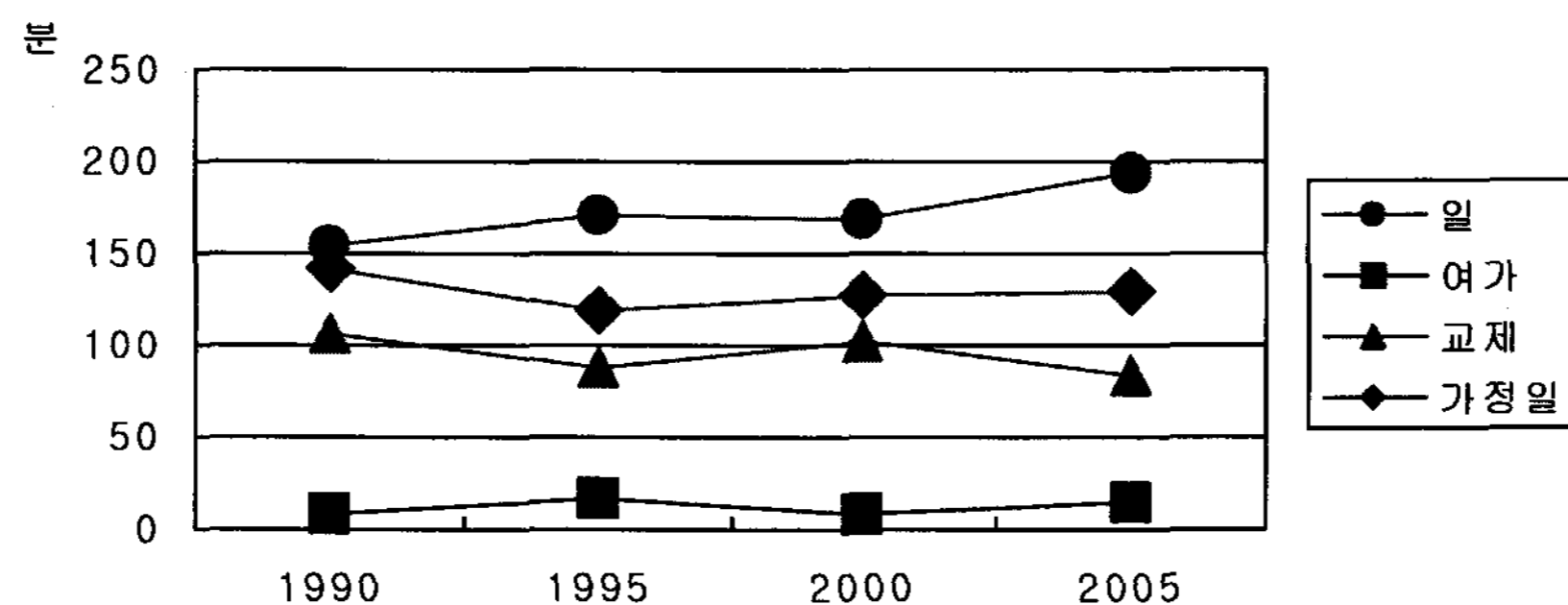
한편, 구미 선진국 뿐 만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에서도 경제발전, 건강 및 교육수준의 향상, 사회·문화적 진보에 따라 독립성, 활동성, 생산성을 갖춘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 으며, 이들은 기존의 노년관을 뛰어 넘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인생기를 영위할 잠재력이 있다 고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장경섭, 2001; 이가옥, 2004). 노년기는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이고 획일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며, 노화는 쇠퇴 뿐 만 아니라 변화와 발달과 성장의 개념까

지 내포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등장할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들은 지난 80년대 경제붐을 주도하며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주축을 이루었다. 그런데 앞으로 이들이 최대의 피부양인구가 되는 것이다. 늘어난 수명과 향상된 건강상태와 교육수준 등은 이들 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제2의 인생으로서 노년기를 구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노년기에 대한 노인 자신 및 사회 일반의 관념에의 변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노년기 이념에 대한 탈전통적(post-traditional)이며 탈현대적(post-modern)인 변화가 필요하며 가속도가 붙은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는 노인들을 의존적 집단으로 설정하여 사회·경제적 자원을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은 단순히 생을 유지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될 것이다.(장경섭, 2001).

노인들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생산적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이 과거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sup>1)</sup>, 1990년 이후 노인집단의 생활시간 중 일에 투여하는 시간이 늘었음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약 40분가량 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일과 교제에 사용하는 시간은 조금 줄었으며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활동 영역을 생산적 행위에 맞는 구체적 행동 내용들에 따라 좀 더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 보아야 나타나는 차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노인집단이 유급이든 무급이든 일하는데 생활시간 배분을 늘리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림 1>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시간 변화



자료: KBS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이용, 1990-2005년 4년차 자료

1) 이를 보기 위해서 KBS의 생활시간 조사 자료 중 1990년부터 2005년까지를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노인집단의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과거로부터 15년간의 변화추세를 보기 위해서 KBS의 생활시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노인들의 변화에 따라서 1960년대 서양에서부터 노년기가 비생산적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단순히 반증하는 차원을 넘어서 노년기의 생산적 행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적인 고령화 경향으로 인해 사회적인 생산성 위기를 고민하는 추세와 맞물려 노인집단의 적극적 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노인집단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노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여기서 비판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적극적 노년, 생산적 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실제 노인 생활을 드러내는데 제대로 된 담론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생산적 고령화 논의에 대한 고민으로써 먼저 노인들의 자신의 생활세계를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다. 그런데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노년학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생산적 활동이라는 개념을 빌어 활동역역들을 구분하려고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생산적 활동이라는 개념은 생산적 고령화 논의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노년기 의미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뺀 경험적 연구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나아가 노인들의 이러한 생산적 활동들이 실제 노인들 생활에 있어서 제 의미를 지니며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양한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과연 노인들 자신에게는 실제로 생산적인 활동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생산적 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의 질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규명해 볼 것이다.

## 2. 노인의 생활세계 구성 : 생산적 활동을 중심으로

노년기 활동에 대한 이론들에는 대표적으로 활동이론과 나아가 기본적 틀을 확장시킨 역할이론이 있다. 노년기에 참여 활동이 많을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빈도가 커지고 이것이 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활동이론의 일반적 견해이다. 그런데 활동이론은 노년기에 선택하는 활동들을 선택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노년기에 참여하는 생산적 활동의 수가 많을수록 노년기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는 데서 오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 변화된 노년기에 들어선 노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활동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행해지는 생산적 활동이외에 비자발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연속이론은 단순한 활동의 총량과 그것의 증감을 강조하는 활동이론보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과 역할의 연속/불연속성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역할이론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의 불연속성과 그런 불연속성이 노인의 자아개념과 사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논의한다. 이론에 의하면, 노년기에 특정한 유형의 활동은 노인에게 부적합하게 여겨지거나 평가절하 되어 노인이 그런 유형의 활동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노인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윤순덕, 2003).

최근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논의가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것이다. 노년기를 생산적 활동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공공복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며 소비만 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에 이의를 제기한다.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임금활동과 비공식적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Crimmins et al., 1999, Herzog, Kahn, Morgan, Jackson & Antonucci, 1989, McIntosh & Danigelis,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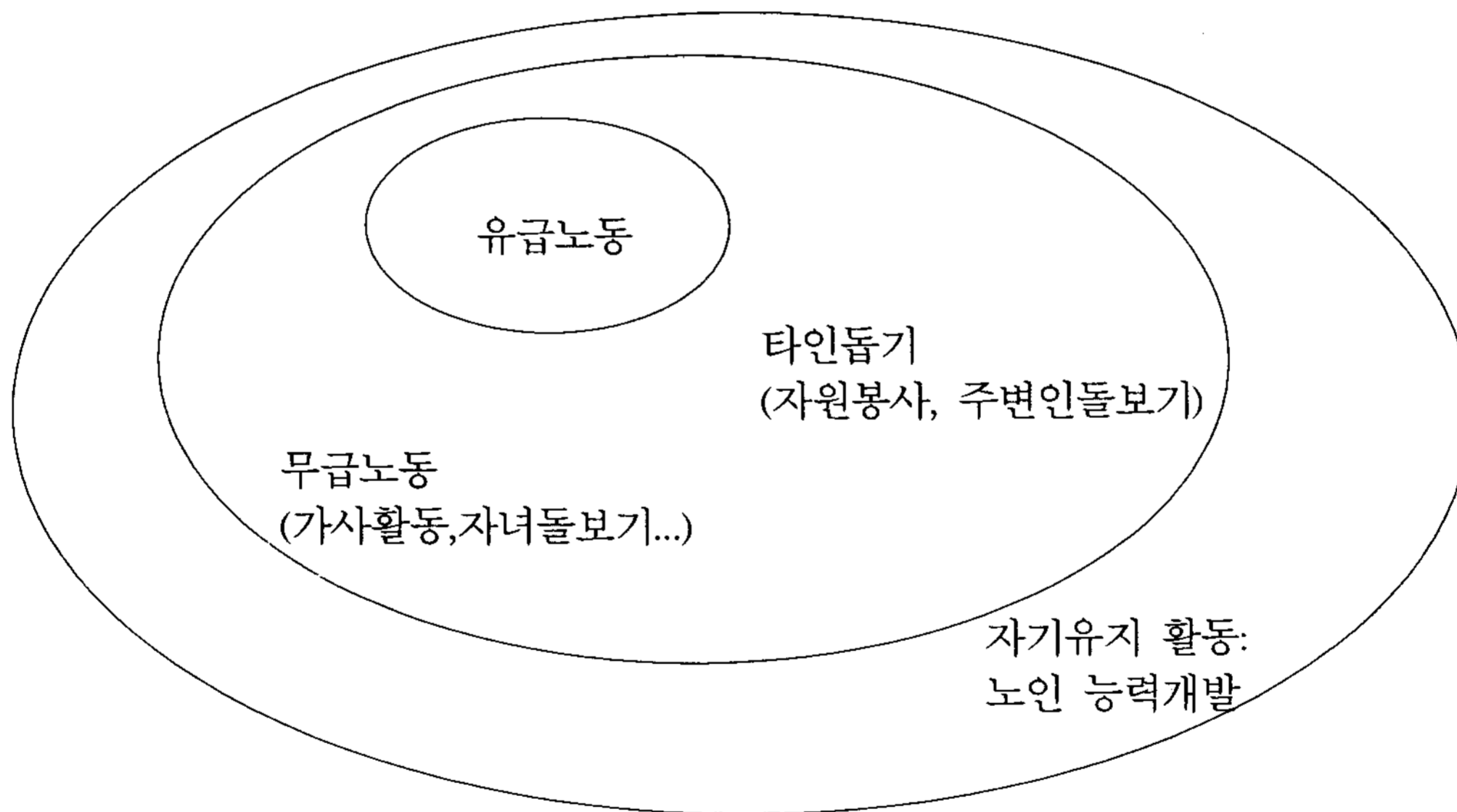
그런데 노년기 어떠한 활동을 노년기 생산적 활동으로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노인의 생산적 행위 개념을 시장가치를 지니는 임금활동만을 생산성으로 보는 순수 경제학적 관점에서 노인의 활동에 적용하면 편리하지만 노년기 생산활동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되었다(Bass et al., 1993). 인간의 여러 활동 중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은 인적 자본의 생산성을 유지시키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시킬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기여분이 공식적인 지표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무급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자신들과 타인들을 위해 재화와 용약을 생산해내는데, 노인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다른 부분에 의해 사회적 비용을 들여 생산, 제공되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노년기 생산활동은 은퇴 이후에 노인 생활을 구성하는 여러 활동들 중 제한적인 임금 활동뿐만 아니라 무급 활동, 사회 기여 행위 등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구분된다. 다시 말해 노인집단이 사회적 부담의 시각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 기여적 측면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생산적 행위를 구분하였다. 노년기에는 임금노동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적일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노년기 생산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Hooyman & Kiyak, 1995).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연구의 분류도 협의의 활동 구분을 넘어서 포괄적인 영역구분을 활용하여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연구를 했다(윤순덕, 2003; 전해정, 2004; 홍현방, 2005; 정순희, 2005). 그런데 생산적 행위의 범위가 노인들에 있어서는 보수가 수반되는 임금노동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이야말로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임

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김형수, 2003, 김미혜, 2001). 그런데 생산적 행위를 경제적 특성을 넘어서 ‘사회적 기여’ 측면을 포함시켜서 사회와 타인에 도움이 되는 원조활동을 포함함에서 더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노인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나 취미나 여가활동, 학습 등 노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위도 생산적 행위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홍현방, 2005).

노인집단의 생산적 행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나타난 행위 유형을 바탕으로 노인집단의 생활세계 분석에 있어서 노인들이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의 영역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생산적 활동에 대한 전통적 구분인 유급 노동과 사회적 기여 측면의 생산성을 인정하는 무급의 가정일과 가족돌봄활동, 자원봉사와 타인을 돕는 행위들이 두 번째 범주가 될 수 있다. 나머지 가장 광범위한 부분은 노인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독립적 생활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포함하는 부분이 해당된다.

<그림 2> 노인집단의 생산적 활동 영역



그런데 본 연구에서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 자본주의적 근원을 두는 생산성에의 강조는 노인집단 중 불리한 조건에 있는 노인들을 주변화 시킬 우려가 있다. 서구에서 먼저 진행된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좋은 환경에 있는 건강한 일부 노인들에 제한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 긍정적인 노년기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기준에 못 미치는 노인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낳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더불어 ‘생산적 고령화’의 개념이, 근래 국가의 복지정책 기조 중 하나로 도입되었던 ‘생산

적 복지'의 개념과 관련지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기존의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개념해석에서부터 논쟁이 있어왔으며, 정치적, 이념적 바이어스가 들어간 일종의 노선의 의미를 지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복지 정책 본연의 사회적 역할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에 치중한 정책 기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적 복지 정책 기조 하에서는 노인을 비생산적 존재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복지 지출은 기본적으로 비생산적 투자로 인식하는 경향을 만들었다. 노년기 생산성 논의가 이러한 차원에서 남용, 이용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오히려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경계한다. 노인의 생활시간 구성 활동 중 생산적 활동에의 주목이 앞서 언급한 서구 사회의 지나친 긍정적 노년 부풀리기도 아니고, 노인 복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에도 주의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서구의 노년기 생산적 활동(생산적 고령화) 논의와 구별하여 한국 사회에서 노인집단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논의를 다시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생산적 활동'이라는 이름 하의 수행된 노인 연구 이전에 한국 노인들에 대하여 진행되었던 기존의 한국 노년학 연구에서, 과연 노인집단의 다양한 활동(노동, 여가, 사회참여, 봉사활동)(강철희, 김영범, 2001, ; 박경숙, 2003; 방하남 외, 2004; 이삼식, 2004; 장지연 외, 2004; 장지연, 2003; 조경옥, 2005, 곽효문, 2002; 나향진, 2004), 다양한 관계(가족, 친족, 사회)(이기홍, 2005; 박경숙, 2003; 정경희, 1995; 김영범, 박준식, 2004 ; 김도환, 2001; 김정석, 2000), 그리고 가치(자아, 정체성, 문화, 규범)(이금룡, 2006; 박영례 외, 2006; 박경숙, 2004; 한경혜, 2004; 김연희, 김기순, 2002; 김운정, 2002; 김정순, 1989)들이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재해석되어야 한다. 각각 구분되어 연구된 노인의 다양한 영역들이 노년기 생산적 활동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노년기 생산적 활동 논의가 서구와는 어떻게 차별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논의 과정 속에서 보다 명확하게 한국의 노인집단의 특징을 볼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에 앞서, 본 연구의 주 목적은 현재 한국 노인들의 변화하는 생활 양상을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하는 생활세계의 모습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특히 노인집단의 다양한 활동을 생산적 고령화(productive aging)라는 개념을 통해 해석하려 한다. 노인집단의 생활세계 구성의 모습은 생산적 고령화의 의미, 선택, 결과가 상이한 인구집단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실제 노년기에 들어선 각 하부 집단에 따라 생활세계 구성의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의 활동상의 차이가 노인의 생활만족도

2)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진행하고 있는 박사논문의 일부분임. 한국 노인의 생산적 활동 개념이 한국 노년학 연구 지형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기존 연구들과의 관련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박사논문의 일부에서 논의될 예정임.



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3. 연구 문제와 자료, 연구 방법

#### (1) 연구문제

노년기의 생산적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언급되었던 노년기의 생산성의 조형에 관련된 몇 가지 요인들을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우선, 개인적 요인들에는 성별, 자원(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교육수준, 노동력(취업력) 등이 있다. 그리고 가족적 요인에는 자녀규모, 주거형태, 자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각 개인적 요인들에 따라서 노인들은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일례로 인적 자본의 양과 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이미 수 많은 연구 결과가 제시 되었으며 이들은 대체로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 사이에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Pencavel, 1986). 그런데 노년기에도 인적자본이론이 일관되게 적용가능한지는 살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적 역할활동에서의 성별차이는 노년기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Herzog(1989)는 남녀 노인의 생산적 활동을 비교한 결과, 남녀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생산적 역할의 종류가 다르고 역할에 투입하는 시간의 양도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남성 노인들은 임금노동이나 집수리 등의 활동을 많이 하고,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가사일, 아이 등 타인 돌보기, 자원봉사활동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근에 와서 다양한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년기에 들어서 남녀 노인들의 활동이 수렴되는 경향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실증적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Gershuny and Robinson 1988; Robinson and Godbey 1999, Blau, 1998, Zick and McCullough, 1991). 한편, 각 개인적 요인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가 두드러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적 요인에 더하여 가족적 요인은 이러한 변수에 또 다른 양상을 만들어 내는 요인이다. 변화 속에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가족적 요인이 개인의 생활 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노년기의 경우 가족의 변수가 다른 어느 생애주기보다 중요하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가족적 요인은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를 분석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노인집단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즉, 노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생활세계의 다양한 활동들에의 참여양상과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 평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활동영역들이 노인들의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1) 남성 노인과 여성노인은 생활세계 구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활동영역, 활동 참여 정도에 있어서 차별적 양상은 어떠한가?
- 2) 노인의 인적 자원에 따라서 생활세계 구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① 건강한 노인일수록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② 노인의 인적자원으로서 교육수준은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이다.
- 3) 노인의 가족자원의 양상에 따라 생활세계 구성에 어떠한 차이가 생겨나는가? 가족구조와 관계에 따라 활동 참여 양상과 성격이 달라진다. 가족자원을 많이 보유한 노인일수록 생산적 활동에 많이 참여할 것이다.
- 4) 노년기에 보유한 물적 자원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세계 구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노인일수록 생산적 활동 참여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 5) 생활세계 구성에 있어서 생산적 활동 참여에 적극적인 노인일수록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일 것이다.

## (2) 자료와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주로 이용된 자료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이다. 이 자료는 1994년도와 1998년도에 실시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후속조사로서 노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구조사와 가구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노인개인조사이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180개 표본조사지역을 추출하여 2004년 6월 28일~9월 10일(75일간) 기간 중 9,308가구와 노인 3,278명에 대한 노인개인조사를 완료하였다. 가구원 사항, 가구주 일반특성, 세대 관계, 주택소유 여부 및 경제상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로 구성되었으며, 노인개인 조사는 노인의 일반특성, 가족 및 친구관계, 가구형태, 직업 및 경제상태, 부양의 교환, 건강 상태,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사회활동, 노인복지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이용실태 및 욕구,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생활환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사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종류와 척도를 <표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개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노인 직접 응답자 3,029 명 중 도시지



역 노인 2,05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지역 노인과 농촌 노인은 생활세계 구성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대부분 생활의 대부분을 농사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적 활동에 참여율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도시 지역 거주 노인의 경우에는 유급노동 참여 양상에 있어서 농촌노인과 다르며, 참여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농촌노인과 차별적이다. 차이가 분명한 두 노인집단을 분석 대상에 함께 포함시킨다면 노인 생활세계 양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우려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노인에 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1>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의 종류 및 척도

변수	구분 및 척도
<b>독립변수</b>	
<기본 특성>	
성	남자, 여자
연령	65-69세, 70-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
<인적 자원>	
교육수준	무학,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이상으로 구분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최장종사 직업	전문/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 농/어/축산직, 기능/노무/기타직, 직업없었음으로 구분
<가족자원>	
혼인상태	유배우, 무배우
가구형태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기타 가구 제외)
자녀규모	없다, 1-2명, 3-4명, 5명 이상으로 구분
자녀지원	보유, 비보유로 구분
<물적자원>	
소득	월평균 총수입 중 비근로/사업 소득(자산소득, 연금/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등 합계)
노후준비	예, 아니오로 구분
공적연금수혜	수혜, 비수혜 (공적연금, 사회보험,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급여 수혜자 구분)
<b>종속변수</b>	
1. 경제적 활동:유급노동	현재 유급활동 여부: 한다=1, 안한다=0
2. 사회 지원 활동	
(1) 가정일 및 돌봄활동	도움 제공, 행위(간병/수발, 손자녀돌보기, 가사노동, 시장보기) : 한다=1, 안한다=0
(2) 타인돕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 한다=1, 안한다=0
3. 자기 유지 활동	
(1) 학습활동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컴퓨터 이용여부 : 한다=1, 안한다=0
(2) 사회단체활동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사교단체, 정치단체 참여여부:한다=1,안한다=0
4. 생활만족도	동년배에 비한 생활만족도(삶의 질-행복감) : 5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노인집단의 특성요인과 노인의 생산적 활동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각 생산적 활동 참여에 대한 노인집단특성요인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서 종속변수가 이분형일 경우에는 로짓회귀분석을 종속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위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경험적 검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권중돈, 조주연, 2000; 김정석, 김익기, 2000; 허준수, 2004)이 밝힌 주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우선, 첫 번째 통제변수들은 노인들의 기본 속성과 인적 자원 변수에 해당하는 인구학적 배경변수들로 성, 연령, 교육 수준, 건강상태가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통제 변수는 노인들의 가족자원, 물적 지원에 해당하는 변수들로 혼인상태, 가구형태, 자녀규모, 자녀지원(수혜)여부, 소득, 노후 준비 여부가 여기에 속한다<sup>3)</sup>.

덧붙여,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노인의 생활영역이 단순하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노인이 생활세계 구성을 이루는 활동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며 그 정도나 양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다양한 활동들을 생산적 활동이라 일컬어지는 영역과 참여여부로 제한적으로 범주화한다.

보충적으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양적 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분석 결과들에 대한 보다 풍부한 설명을 위해 직접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이후 생활세계 구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 이들 노인들의 인터뷰 내용들은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사회적 맥락과 노인들의 구체적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 가능하도록 하였다. 심층면접은 2006년 11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접 대상자는 남, 여 노인 10명이다. 심층면접은 노인들의 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 참여 양상과 그러한 활동들이 노인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그러한 활동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들을 중심으로 한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면접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3) 특히 노인의 각 생산적 활동 영역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회귀분석 모형은 노인의 인구학적 변수와 가족, 물적 자원 변수로 나누어 통제변수의 적용을 하였는데 이는 김정석, 김익기(2000)의 연구 모형을 참고하였음을 밝혀 둠.

<표 2> 심층면접한 노인들의 특성

	면접대상자	성별	연령	학력	거주형태	자녀수	활동경력	면접 장소
1	이**	남	70	무학	노인부부	1남 1녀	노동	면접자의 집
2	최★★	남	75	고졸	노인부부 (노모부양)	4남	사업	게이트볼 경기장
3	정☆☆	여	71	사범학교	단독(노모 부양)	자녀 없음	교사	동사무소
4	김○○	여	66	무학	노인부부	1남 1녀	미싱일	면접자의 집
5	송◇◇	여	65	고졸	노인부부	1남 1녀	은행원	교회
6	송※※	남	70	대졸	노인부부	1남 4녀	교사	복지관
7	홍◆◆	여	75	사범학교	단독(장남 동거)	1남 2녀	교사	복지관
8	윤♠♠	여	66	고졸	노인부부(장남 동거)	2남	전업주부	복지관
9	서▲▲	남	69	대졸	노인부부(장남 동거)	2남	공무원	복지관
10	배●●	남	76	중졸	단독(장남 동거)	1남 3녀	장사	종묘공원

#### 4. 분석 결과

##### (1) 분석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표3>에 제시하였다. 여성노인이 60.9%이고 남성노인이 39.1%로 여성노인이 많다. 연령분포는 65-69세가 40.2%로 가장 많다. 혼인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많아서 56.2%이다. 가구 형태는 자녀와 동거 하는 가족보다 노인부부가족이나 노인 가구인 경우가 57.3%로 노인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노인의 경우(75.2%)가 그렇지 않은 경우(24.8%)보다 월등히 많아서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자녀부양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노인 스스로 노후부양을 했는지 여부를 보면, 반대로 노후준비를 한 경우는 27.8%이고 노후대책이 없는 경우가 72.2%로 나타났다.

<표 3>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영역	항목	빈도수	구성비
성	남	802	39.1
	여	1,250	60.9
연령	65-69세	825	40.2
	70-74세	625	30.5
	75세 이상	602	29.3
교육수준	무학	688	33.5
	초등학교	711	34.7
	중학교 이상	653	31.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233	11.4
	약간 나쁘다	530	25.8
	보통이다	570	27.8
	약간 좋다	527	25.7
	매우 좋다	192	9.3
혼인상태	무배우	898	43.8
	유배우	1154	56.2
가구형태 <sup>4)</sup>	노인독신가구	424	22.1
	노인부부가구	676	35.2
	자녀동거가구	820	42.7
자녀규모	없다	102	5.0
	1-2명	470	22.9
	3-4명	836	40.7
	5명 이상	644	31.4
자녀지원	보유	1,543	75.2
	비보유	509	24.8
월평균수입 (비근로/사업수입)	20만원 미만	938	45.7
	20-40만원 미만	655	31.9
	40-60만원 미만	172	8.4
	60-100만원 미만	97	4.8
	100만원 이상	189	9.2
노후준비	예	571	27.8
	아니오	1,481	72.2
계		2,052	100.0

4) 손자녀 동거 가구는 자녀 동거 가구로 포함. 동거 가구는 있으니 미상인 경우 포함하여 기타 132명은 분석에서 제외시킴. 전체 2052명. 이후 회귀분석에서는 자녀동거와 노인가구(비동거)로 나누어 분석함.

## (2) 사회 인구학적 변수별 노인생활세계 구성

### ① 기본속성 : 성별 , 연령별

은퇴 후 성별 무급 노동, 특히 가사 노동의 분리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역할 분리가 가족 생애의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줄어들고, 노동 의무와 육아 요구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은퇴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획기적 사건이 된다고 보았다. 한편, 성역할 분리는 은퇴 이후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반대 논의들도 만만치 않다. 몇몇 연구들은 은퇴 후 대부분의 커플들이 성역할 간의 분명한 구별을 통해서 여전히 전통적인 패턴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Brubaker, 1995).

노년기 가족관련 활동은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전통적 가사노동 및 보살핌 노동의 성간 격차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특히,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노년이 되었다고 여성의 가사노동과 보살핌 노동에 대한 부담이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 여성 노인은 여전히 전통적 가사노동과 그 배우자의 일차적 수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정경희 외, 2004, 박민자, 손문금, 2005). 사회적 역할활동에서의 성별차이는 노년기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Herzog(1989)는 남녀 노인의 생산적 활동을 비교한 결과, 남녀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생산적 역할의 종류가 다르고 역할에 투입하는 시간의 양도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남성 노인들은 임금노동이나 집수리 등의 활동을 많이 하고,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가사일, 아이 등 타인 돌보기, 자원봉사활동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노인의 성별 활동 참여 분포

활동영역		(%/N)	성 별		X <sup>2</sup>
			남	여	
경제적 활동	유급 노동	한다(21.6/443)	32.5(261)	14.6(182)	93.338***
		안한다(78.4/1609)	67.5(541)	85.4(1068)	
사회지원활동	가정일 및 돌봄 활동	한다(63.3/1299)	59.7(479)	65.5(820)	7.128**
		안한다(36.7/754)	40.3(323)	34.5(431)	
	타인돌보기: 자원봉사	한다(88/4.3)	5.2(42)	3.7(46)	2.906
		안한다(1963/95.7)	94.8(759)	96.3(1204)	
사회지원활동	사회지원활동	한다(65.3/1340)	62.7(502)	67.0(838)	4.113**
		안한다(34.7/711)	37.3(299)	33.0(412)	
자기유지활동	학습활동	한다(18.2/373)	20.2(162)	16.9(211)	3.619**
		안한다(81.8/1679)	79.8(640)	83.1(1039)	
	사회단체활동	한다(68.9/1414)	69.3(555)	68.7(859)	.089
		31.1(638)	30.7(246)	31.3(392)	
자기유지활동	자기유지활동	한다(72.7/1491)	72.3(580)	72.9(911)	.077
		안한다(27.3/561)	27.7(222)	27.1(339)	

2004년 노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성별 차이는 <표4>와 같다. 유급노동은 다른 기존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가정일과 가족돌봄 활동 등을 통한 사회지원활동은 예상대로 여성노인의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남성 노인의 참여율도 60% 가까이 나타난다. 그 이외 자기유지활동에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과 생산적 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인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활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연령의 효과라기보다는 건강상태의 효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즉, 건강상태가 통제된다면 연령증가에 따라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McIntosh & Danigelis, 1995). 노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산적 활동이 줄어드는데 이는 생산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할 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라는 연구(Morgan, 1991)가 있지만 건강상태, 교육수준, 수입 등의 자원관련 변인을 통제하면 연령의 효과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 연구 결과에서는 Caro & Bass(1992)와 Herzog et al(1989)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생산적 행위와의 관계에서, 유급노동과 자녀돌보기와 같은 행위에서는 연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를 보이지만, 자원봉사, 가사, 가정유지 활동 등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활동역역 전반에 걸쳐서 대체적으로 연령이 적을수록 활동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원봉사활동과 학습활동에 있어서는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5> 노인의 연령별 활동 참여 분포

		(%/N)	연령			X <sup>2</sup>
			65-69세	70-75세	75세 이상	
경제적 활동	유급 노동	한다	29.5(243)	21.8(136)	10.5(63)	74.050***
		안한다	70.5(582)	78.2(489)	89.5(538)	
사회지원활동	가정일 및 돌봄 활동	한다	71.5(590)	62.1(389)	53.2(320)	50.978***
		안한다	28.5(235)	37.9(237)	46.8(282)	
	타인돕기: 자원봉사	한다	5.1(42)	4.0(25)	3.7(22)	1.971
		안한다	94.9(783)	96.0(601)	96.3(579)	
	사회지원활동	한다	73.1(603)	64.8(405)	55.3(333)	48.685***
		안한다	26.9(222)	35.2(220)	44.7(269)	
자기유지활동	학습활동	한다	20.1(166)	17.4(109)	16.3(98)	3.738
		안한다	79.9(659)	82.6(516)	83.7(503)	
	사회단체활동	한다	76.7(633)	66.6(417)	60.5(364)	45.083***
		안한다	23.3(192)	33.4(209)	39.5(238)	
	자기유지활동	한다	79.3(654)	70.7(442)	65.6(395)	34.387***
		안한다	20.7(171)	29.3(183)	34.4(207)	



## ② 인적 자원 : 건강상태, 학력

Glass et al(1995)의 연구에서는 생산적 행위의 수준을 결정짓는 개인적 변수로 병원에의 입원이나 발작 등과 같은 건강요인을 지적하였다. 기능적 장애와 같은 건강 요인은 생산적 행위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노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보면, 교육수준과의 관계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쁜 편으로 평가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은 편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 보면, 건강상태를 나쁜 편으로 응답한 노인들이 20만원 미만의 경우에 100만원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보다 거의8배가 많았다. 건강이 좋은 편으로 응답한 노인들은 100만원 이상 노인들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경제사회적 지위변수들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 불평등이 일관되게 증가한다(누적적 이득 가설-cumulative advantage))고 보고되고 있다(김진영, 2006; 김승곤, 2005; 우해봉, 2001).<sup>5)</sup> 혼인 상태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더 건강 상태를 좋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구성으로 보면 노인단독 보다 노인 부부가구나 자녀 동거 가구의 경우에 건강상태가 좀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인실태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생산적 활동에 참여 양상은 서구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6>.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모든 활동에서 소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많은 경우 증명된 바이다. 그리고 서구의 성공적 노화나 생산적 고령화 논의에서 적극적인 활동 참여의 긍정적 변수로 중요하게 지적되었던 것이 노인의 양호한 건강상태이다. 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결론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대부분의 다양한 생산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지원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의 경우와 좋은 노인의 경우의 참여율 차이가 다른 영역에서 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가정일이나 돌봄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꽤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

5) 서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의 격차가 나이가 증가할수록 점점 커져가는 양상을 발견해왔으며 이는 누적적 이득(cumulative advantage) 가설로 설명된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건강과 연관되는 많은 자원들의 누적적 차이를 가져오며, 일생에 걸쳐 이러한 자원의 증대되는 격차는 건강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Ross & Wu, 1996). 한편으로는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어든다는 수렴의 연구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등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지원이 격차를 줄인다고 설명된다(House, Lantz, and Herd, 2005). 그런데 한국의 경우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서구에 비해 취약한 점을 생각한다면 건강격차의 수렴을 예상하기엔 이르다고 본다.

이 두드러진다.

<표 6> 노인의 건강상태별 활동 참여 분포

		(%/N)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 상태					X <sup>2</sup>
			매우 나쁨	약간 나쁨	보통	약간 좋음	매우 좋음	
경제적 활동	유급 노동	한다	9.9(23)	14.0(74)	24.0(137)	27.3(144)	33.9(65)	66.429***
		안한다	90.1(210)	86.0(456)	76.0(433)	72.7(383)	66.1(127)	
사회지원 활동	가정일 및 돌봄 활동	한다	52.1(122)	62.5(331)	64.7(369)	65.2(344)	69.8(134)	17.483**
		안한다	47.9(112)	37.5(199)	35.3(201)	34.8(184)	30.2(58)	
	타인돕기: 자원봉사	한다	1.3(3)	3.0(16)	3.7(21)	5.9(31)	8.9(17)	20.851***
		안한다	98.7(230)	97.0(514)	96.3(549)	94.1(496)	91.1(174)	
	사회지원활동	한다	52.1(122)	64.2(340)	66.1(377)	67.8(358)	75.0(144)	27.808***
		안한다	47.9(112)	35.8(190)	33.9(193)	32.2(170)	25.0(48)	
자기유지 활동	학습활동	한다	10.7(25)	15.5(82)	21.6(123)	17.6(93)	26.2(50)	24.043***
		안한다	89.3(208)	84.5(448)	78.4(447)	82.4(434)	73.9(141)	
	사회단체 활동	한다	50.2(117)	65.1(345)	74.4(424)	72.7(383)	75.0(144)	56.351***
		안한다	49.8(116)	34.9(185)	25.6(146)	27.3(144)	25.0(48)	
	자기유지활동	한다	53.2(124)	68.7(364)	78.6(448)	76.9(405)	78.0(149)	66.062***
		안한다	46.8(109)	31.3(166)	21.4(122)	23.1(122)	22.0(42)	

인적 자본의 양과 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가 제시 되었으며 이들은 대체로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가 사이에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Pencavel, 1986). 이와 관련하여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체계에 따라 노인들의 생산적 활동 양상이 달라진다는 기존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지배적 지위 모델(dominant status model)을 주장하며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지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Smith, 1994). 지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주로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이 알려져 있다. 교육수준은 대체로 직업지위나 소득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자원축적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으며, 노년기에 들어서 다양한 생산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또한 경제적 능력과 노년기 사회적 지원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비공식적 지원활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이다(전혜정, 2003).

2004년 노인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변수와 관련하여 유급노동을 위한 활동에는 무학과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노인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중학교 이상의 고학력 노인의 경우에는 유급노동 참여율이 떨어졌다. 전통적으로 학력은 직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노년노동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 유급노동이 대부분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로 할 때, 노년기의 유급노동 여부와 학력과의 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별을 통제했을 때,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유급노동 참여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학력에 따른 유급노동 참여율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7>

<표 7> 노인의 교육수준별 활동 참여 분포

		(%/N)	남자				여자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X <sup>2</sup>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X <sup>2</sup>
경제적 활동	유급 노동	한다	35.6(32)	36.2(93)	29.9(136)	3.385	16.7(100)	15.0(68)	7.0(14)	11.377**
		안한다	64.4(58)	63.8(164)	70.1(319)		83.3(498)	85.0(386)	93.0(185)	
사회지 원활동	가정일 및 돌봄 활동	한다	54.4(49)	55.6(143)	63.2(287)	5.126*	58.9(352)	71.1(322)	73.4(146)	23.379***
		안한다	45.6(41)	44.4(114)	36.8(167)		41.1(246)	28.9(131)	26.6(53)	
	타인돕기: 자원봉사	한다	1.1(1)	4.7(12)	6.4(29)	4.397	2.0(12)	3.5(16)	9.5(19)	23.613***
		안한다	98.9(88)	95.3(246)	93.6(426)		98.0(587)	96.5(437)	90.5(180)	
	사회지원활동	한다	55.1(49)	58.8(151)	66.4(302)	6.557*	59.9(358)	72.2(327)	76.9(153)	28.083***
		안한다	44.9(40)	41.2(106)	33.6(153)		40.1(240)	27.8(126)	23.1(46)	
자기유 지활동	학습활동	한다	6.7(6)	14.0(36)	26.7(121)	28.059***	12.2(73)	16.8(76)	31.2(62)	38.214***
		안한다	93.3(84)	86.0(222)	73.3(333)		87.8(525)	83.2(377)	68.8(137)	
	사회단체 활동	한다	41.1(37)	65.5(169)	76.9(349)	47.510***	61.0(365)	73.1(332)	81.4(162)	35.391***
		안한다	58.9(53)	34.5(89)	23.1(105)		39.0(233)	26.9(122)	18.6(37)	
	자기유지활동	한다	42.7(38)	68.2(176)	80.4(366)	56.169***	65.6(392)	77.0(349)	85.4(170)	36.068***
		안한다	57.3(51)	31.8(82)	19.6(89)		34.4(206)	23.0(104)	14.6(29)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영역의 생산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생산적 활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데, Herzog & Morgan(1993)의 연구에서도 특히 공식적인 자원봉사의 경우 교육변수가 촉진요인으로 관찰되었다. 가정일과 가족돌봄 활동에 있어서는 여성노인은 물론이고 남성 노인의 경우에도 학력이 높아질수록 참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단체 활동은 종교단체 참여활동만 무학의 노인들이 참여도가 높고 나머지 문화단체, 정치단체, 운동단체, 사교 단체 활동의 참여율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문화단체 활동과 정치단체, 운동 단체, 사교단체 활동의 참여는 고등학교 이상 고학력 노인 집단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유지활동도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참여도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의 지배적 지위 모델을 지지하면서 학력이 노년기의 생활세계 구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급노동을 하는 이유에 있어서 무학과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노인집단 간의 차이를 보면, 유급 노동의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라든가, 건강 유지를 위해서 등인 경우가 무학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노인집단이 월등히 높았다. <표 8>

<표 8> 교육수준별 유급 노동 참여 이유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전체
일하는 것이 좋아서	5.3%	6.2%	7.0%	16.1%	8.1%
돈이 필요해서	79.5%	72.7%	82.5%	48.4%	70.9%
건강유지를 위해서	4.5%	10.6%	7.0%	18.3%	9.9%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5.3%	3.1%	0.0%	4.3%	3.6%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0.8%	3.1%	1.8%	10.8%	3.8%
일손이 모자라서	3.8%	4.3%	0.0%	1.1%	2.9%
기타	0.8%	0.0%	1.8%	1.1%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③ 가족 자원 : 혼인상태, 가구형태, 자녀지원

사회적 지원망(social network)은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비롯하여 공식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한다. 사회적 지원망은 노년기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자원의 한 형태이다. 사회적 지원망은 인간발달 전 단계에 걸쳐 중요하지만 노년기에 있어 특히 주요한 역할을 한다(김기태·박봉길, 2000; 정경희, 1995; 최정아·서병숙, 1992). 건강수준의 저하, 배우자의 죽음, 직장에서의 은퇴 등 노년기에 겪는 여러 가지 변화를 성숙하게 맞이하기 위해 노인에게 있어 지원망의 기능은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체계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은 사회적 지지체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노인에 비해 빨리 사망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경향이 있다(Carstensen, 1991). 노인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망을 구성하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의 순으로는 배우자, 자녀, 친구, 이웃 등으로 언급된다(Cantor, 1979; 정순돌, 2004에서 재인용; 이형실, 1999). 각각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종류 및 지지의 유형과 관련된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이며, 지지의 유형 중 도구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모두 포

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면, 지지유형에 있어서 도구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정경희 외, 1998).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유급노동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에게서 지원을 받지 않으며 자녀와 동거 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에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원활동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으므로 가정일 및 돌봄활동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남성노인의 수발과 손자녀 수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남성 노인의 경우에도 앞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인부부인 경우와 손자녀 수발의 경우에는 가정일/돌봄 활동에 일정정도 참여율을 보인다. 자기유지활동의 경우에는 배우자 있는 경우에 조금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그 이외에 경우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9> 노인의 혼인상태별 활동 참여 분포

		(%/N)	혼인상태		X <sup>2</sup>
			무배우	유배우	
경제적 활동	유급 노동	한다	14.5	27.1	47.881***
		안한다	85.5	72.9	
사회지원활동	가정일 및 돌봄활동	한다	50.1	73.6	120.890***
		안한다	49.9	26.4	
	타인돕기: 자원봉사	한다	3.6	4.9	2.320
		안한다	96.4	95.1	
	사회지원활동	한다	52.2	75.6	122.776***
		안한다	47.8	24.4	
자기유지활동	학습활동	한다	16.8	19.2	1.992
		안한다	83.2	80.8	
	사회단체활동	한다	65.9	71.2	6.822**
		안한다	34.1	28.8	
	자기유지활동	한다	69.8	74.9	6.479**
		안한다	30.2	25.1	

<표 10> 노인의 주거형태 및 자녀관계별 활동 참여 분포

		(%/N)	자녀동거		$\chi^2$	자녀지원		$\chi^2$
			비동거	동거		보유	비보유	
경제적 활동	유급 노동	한다	23.9	18.8	7.341**	17.8	33.0	52.231***
		안한다	76.1	81.2		82.2	67.0	
사회지원활동	가정일 및 돌봄 활동	한다	51.2	75.8	119.711***	65.3	57.4	10.270**
		안한다	48.8	24.2		34.7	42.6	
	타인돕기: 자원봉사	한다	4.2	4.5	.124	4.1	4.9	.654
		안한다	95.8	95.5		95.9	95.1	
	사회지원활동	한다	53.6	77.2	113.130***	67.4	59.1	11.423***
		안한다	46.4	22.8		32.6	40.9	
자기유지활동	학습활동	한다	20.1	14.9	8.700**	16.0	24.8	19.687***
		안한다	79.9	85.1		84.0	75.2	
	사회단체활동	한다	66.9	70.1	2.280	69.8	66.0	2.588
		안한다	33.1	29.9		30.2	34.0	
	자기유지활동	한다	71.2	73.3	1.040	73.4	70.5	1.628
		안한다	28.8	26.7		26.6	29.5	

④ 물적 자원 : 소득

노인의 자원체계를 이루는 중요한 또 다른 변수는 경제적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형태의 수입을 합산한 월평균 수입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상태를 살펴본다. 노인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 수입의 형태는 근로 및 사업·부업 소득과 재산소득, 금융소득, 개인연금을 포함한 자산 소득,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참전 명예수당 등을 포함하는 공적이전소득, 마지막으로 친인척 보조금과 사회단체 보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한 사적 이전 소득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활동영역에 유급노동이 포함된다. 따라서 실제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생산적 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입 중 근로 및 사업,부업 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수입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을 가늠해보기로 한다. 먼저 이들 소득의 구성을 비교해보면, 100만원 이상 수입을 가진 노인집단과 20만원 미만 수입을 가진 노인집단은 차이를 보인다.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상 노인집단은 친인척보조금과 공적연금이 수입의 주요한 구성이다. 월평균 수입 20만원 미만 노인집단은 교통수당을 제외하고 친인척 보조금의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경로연금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유급노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월평균 수입에 따라 비교해 보면, 1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노인집단이 2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지는 노인 집단에 비해서 돈 이외 다른 이유에 의해서(일의 의미, 사회적 기여...) 유급 활동을 하는 경우가 3배 가량 높았다.

노인집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각 생산적 활동의 양상을 비교해 보면<표11>, 경제적 상황이 풍부할수록 생산적 행위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급노동의



참여도는 월평균 수입이 적은 노인집단의 경우에 유급노동 참여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식적 사회지원 행위인 자원봉사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의 월평균 수입을 보이는 노인집단이 자원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의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지배적 지위모델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공식적 지원활동인 가정일과 가족돌봄 활동에 있어서는 간병/수발, 손자녀돌보기, 가사노동, 시장보기에 이르기 까지 20만원 미만의 월수입을 가지는 노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표 11> 노인의 소득수준별 활동 참여 분포

		(%N)	20만원미만	20-40만원미만	40-60만원미만	60-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chi^2$
경제적 활동	유급 노동	한다	32.2	13.3	11.7	11.2	11.6	116.583***
		안한다	67.8	86.7	88.3	88.8	88.4	
사회 지원 활동	가정일 및 돌봄 활동	한다	70.3	54.7	60.2	54.1	66.1	45.734***
		안한다	29.7	45.3	39.8	45.9	33.9	
	타인돕기: 자원봉사	한다	3.2	4.3	5.2	7.1	8.4	12.655**
		안한다	96.8	95.7	94.8	92.9	91.6	
사회지원활동	한다	71.7	56.6	62.6	57.1	70.4	44.489***	
	안한다	28.3	43.4	37.4	42.9	29.6		
자기 유지 활동	학습활동	한다	13.4	16.8	21.5	33.7	35.8	71.648***
		안한다	86.6	83.2	78.5	66.3	64.2	
	사회단체 활동	한다	65.7	66.4	70.3	79.4	86.8	39.765***
		안한다	34.3	33.6	29.7	20.6	13.2	
	자기유지활동	한다	68.9	71.0	74.4	82.7	90.0	41.618***
		안한다	31.1	29.0	25.6	17.3	10.0	

다음으로 사회단체 활동을 보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정치단체 활동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월평균 수입을 가진 노인집단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고(특히 운동단체와 정치단체 참여율은 월평균 수입이 증가 할수록 참여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2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노인집단의 경우에는 사회단체 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종교단체 활동으로서, 월평균 수입이 평균보다 적은 노인집단에서 70% 가까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 개발 활동에 있어서는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노인집단에서 가장 많은 수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

### (3) 중요 변인에 따른 생활세계 구성 활동 특성

다음의 <표 12>은 노인의 생산적 활동 각 영역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노인들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유급노동에의 참여를 보면, 남자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유급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더 많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학력에 있어서는 무학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유급노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떨어지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없을수록 유급노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유급노동을 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marginally) 유의하게 노후대책을 세운 경우에 유급노동을 더 할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65세 이전에 노후 대책을 세운 노인들이 65세 이후 노년기에 들어서도 스스로 일정정도의 유급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유지하려는 경우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 사회지원활동을 보면, 성과 연령, 건강상태, 혼인상태, 가구형태, 노후준비 여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여성노인의 경우에,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이 좋은 노인일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자녀와 동거 하는 경우에 그리고 노후준비가 되어있는 경우에 사회지원활동에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일과 돌봄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지원활동의 경우에는 가족자원 변수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유지활동에 있어서는 예상했던 대로 학력 변수와 물적 자원변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변수로 성, 연령, 건강상태, 학력, 최장종사직업 중 전문/사무관리직의 경우에, 소득, 노후준비 여부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경우에, 연령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기유지활동에 저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젊었을 때 장기 종사했던 직업이 전문/관리직이었던 경우에 자기 유지활동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자기 유지 활동의 경우에는 사회지원활동과 달리 가족자원변수들이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대신 물적 자원 변수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노후 준비를 한 노인일수록 자기유지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표 12> 노인의 생활세계 구성 활동 참여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유급노동 <sup>2)</sup>		사회지원활동 <sup>3)</sup>	자기유지활동
	b(S.E.)		b(S.E.)	b(S.E.)
기본속성		기본속성		
여(기준=남자)	-1.200(.179)***	성(여=0)	-0.872(.066)***	-0.284(.057)***
연령	-0.136(.016)***	연령	-0.027(.005)***	-0.020(.004)***
인적 자원		인적 자원		
건강상태	0.465(.062)***	건강상태	0.116(.021)***	0.081(.018)***
학력(준거집단=무학)		학력(준거집단=무학)		
초등학교	-0.368(.180)*	초등학교	0.048(.062)	0.225(.054)***
중학교 이상	-0.487(.230)*	중학교 이상	0.097(.080)	0.355(.070)***
최장종사직업 (준거집단=직업없었음)		최장종사직업 (준거집단=직업없었음)		
전문/사무관리직	19.288(2541.954)	전문/사무관리직	0.004(.105)	0.330(.092)***
판매/서비스직	19.914(2541.954)	판매/서비스직	-0.005(.095)	0.111(.083)
농/어/축산업	0.675(.178)***	농/어/축산업	-0.025(.066)	-0.042(.057)
기능/노무/기타직	19.515(2541.954)	기능/노무/기타직	0.122(.088)	-0.028(.077)
가족자원		가족자원		
무배우(기준=유배우)	0.084(.175)	혼인상태(무배우=0)	0.918(.060)***	-0.035(.053)
자녀규모	0.164(.042)***	자녀규모	0.008(.014)	0.017(.012)
자녀비동거(기준=동거)	0.380(.144)**	가구형태(비동거=0)	0.601(.051)***	0.047(.044)
자녀지원(기준=비보유)	-0.873(.158)***	자녀지원(보유=0)	0.006(.060)	0.014(.053)
물적자원		물적자원		
비근로사업수입 (준거집단=20만원 미만)		비근로사업수입 (준거집단=20만원 미만)		
20-40만원미만	-1.243(.168)***	20-40만원미만	-0.072(.065)	0.083(.049)
40-60만원미만	-1.676(.295)***	40-60만원미만	0.059(.089)	0.153(.078)*
60-100만원미만	-1.923(.387)***	60-100만원미만	-0.198(.114)	0.328(.100)**
100만원 이상	-2.629(.321)***	100만원 이상	0.076(.103)	0.360(.090)***
노후준비 무(기준=유)	-0.414(.176)*	노후준비여부(무=0)	0.172(.064)**	0.280(.056)***
공적연금수혜 (기준=비수혜)	-0.121(.183)	공적연금수혜 (비수혜=0)	-0.096(.063)	-0.102(.055)
상수	-10.808(2541.954)	상수	2.324(.363)	2.000(.318)
자유도(d.f)	19	자유도(d.f)	19	19
-2log Likelihood	1461.338	F	35.186***	22.288
$\chi^2$ 차이	540.006***	$R^2$	0.261	0.183

주1) \* p<0.05 , \*\* p<0.01, \*\*\*p<0.001

주2) 종속변수 : 유급노동 참여 (=1, 불참=0), 이항 로지스틱분석

주3) 종속변수 : 사회지원활동 회귀분석, 주4) 종속변수 : 자기유지활동 회귀분석

(4) 노인의 생활세계 구성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 13>에서 {모형 1}은 각 노인의 활동역역이 생활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이모형에 의하면, 노인 활동역역 중 사회단체 참여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활동도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의 긍정적 영향도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marginally)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른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노인기본속성과 인적 자원 변수들을 포함하여 확장한 모형이다. 이들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각 노인활동 영역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도록 해준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 영역별 생활만족도 영향을 보면, {모형 1}에 비해서 변화를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유급노동에의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부적(negative) 영향( $b=-.072$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단체활동 참여가 유의성 수준은 유지되면서 그 크기가 다소 줄어들었다. 노인 인적자원변수들이 통제변수로 고려된 이후에도 학습활동과 사회단체 활동에의 참여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노인 기본속성변수와 인적 자원 변수들의 영향을 보면, 남성노인 보다 여성노인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무학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 모형

	모형1 b(S.E.)	모형2 b(S.E.)	모형3 b(S.E.)
독립변수			
유급노동	.028(.051)	-.072(.050)	.018(.054)
가정일/돌봄활동	.018(.019)	.005(.018)	-.046(.020)*
자원봉사활동	.221(.107)*	.073(.099)	.074(.100)
학습활동	.178(.049)***	.097(.046)*	.107(.047)*
사회단체활동	.255(.029)***	.170(.028)***	.137(.029)***
기본속성			
성(여=0)		-.068(.048)	-.317(.057)***
연령		.096(.026)***	.125(.028)***
인적 자원			
건강상태		.262(.018)***	.249(.018)***
학력(준거집단=무학)			
초등학교		.326(.051)***	.243(.053)***
중학교 이상		.455(.061)***	.306(.065)***

가족자원			
혼인상태(무배우=0)			.365(.055)***
자녀규모			.002(.012)
자녀동거(비동거=0)			.188(.045)***
자녀지원(보유=0)			-.157(.051)**
물적자원			
비근로사업수입 (준거집단=20만원 미만)			
20-40만원미만			.058(.048)
40-60만원미만			.192(.078)*
60-100만원미만			.422(.100)***
100만원 이상			.358(.088)***
노후준비여부(무=0)			.155(.054)**
상수	2.851(0.40)	1.801(.088)	1.664(.106)
자유도(d.f)	5	10	19
F	26.439***	49.703***	30.347***
R <sup>2</sup>	.061	.197	.234

{모형 3}은 {모형 2}에 노인의 가족자원과 물적자원 변수들을 포함시켜 더욱 확장한 것이다. {모형 3}에서 나타나는 노인 생산적 활동 영역과 생활만족도 관계의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가정일/돌봄 활동에의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부적(negative) 영향( $b=-.046$ )을 미치는 것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물적 자원 변수를 통제 했을 때 노인들이 가정일이나 돌봄활동을 하는 것이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사한다. 사회단체활동의 참여가 {모형 3}에 와서도 여전히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중요한 활동 영역임을 다시 한번 드러낸 준다고 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노인의 기본속성과 인적자원변수들은 영향에 있어서 크기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유의성을 유지한다. 가족자원변수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자녀와 동거를 하는 경우에 그리고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있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물적자원변수를 보면, 소득이 60 만원 이상의 경우에(20만원 미만의 경우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노후준비를 한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인의 인구학적 배경과 자원체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노인들은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생활만족도가 높고,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며, 가정일/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만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인이 스스로의 생활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요인은 건강과 경제상태였다. 노년기를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노인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런 노인들의 대부분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요소로 건강과 기본적인 경제력이라고 응답하였다.

#### (5) 노년기 생산적 활동 사례 연구 결과

현재의 노인들은 늘어난 노년기를 스스로 꾸려나가야 하는 어쩌면 고단한 시기에 놓이게 되었다. 젊은 세대에게 사회적 중요 역할을 물려주고, 자녀양육이나 직장에서의 책임 등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노년기에는 이전 시기에 누려보지 못한 시간적 여유와 심적 자유로움이 주어졌다. 게다가 여전히 양호한 건강상태는 늘어난 현재 노년으로서의 시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노년기를 지내고 있는 노인들도 있다. 일련의 노인들에게는 늘어난 노년기가 여유와 자유로움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시간의 적적함과 지루함이고, 마지못해 이어가는 시간일 수 있다. 이러한 여유와 자유로움은 노인 스스로 생활 속에서 구현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인 것이다.

과연 현재의 노인들은 자신 앞에 놓인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 것인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독특한 생애 경험과 자원, 인성들이 노년기 생활세계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방법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결과를 보면,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는 노인들의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주었다. 기존 노인 연구에서는 노인의 가족과의 관계가 노년기의 중요한 문제로 주목하여 논의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노인의 가족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런데 인터뷰 결과 노인들은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정도의 독립과 체념의 경향을 보인다.

같이 사는 건 안 하고 싶어요. 서로 거북하다고 하지요. 난 아들이고 딸이고 그래요. 며느리에게도 그랬어요. 니들이 우리 늙어서 모실 걱정할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 먹고 살 꺼는 있다. 만약 내가 몸을 못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썩 유료 양로원에라도 간다. 걱정 말아라 그랬지요. 너희들에게 절대 부담 안 준다 그랬어요. 절 대 싫어요. 거북해서 싫어요. (송., 여, 65세)



자식들이 좀 자주 찾아오면 좋을 텐데 그게 뭐. 멀리 있는 애들한테 자꾸 오라고 하기도 뭐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자주 오면 좋은 거지. 근데 같이 사는 건 싫어. 현재로는 좀 그래. 자유가 없잖아. 단독이면 모를까 아파트잖아. 문 열면 다 보이는데 행동거지가 그렇잖아. 거동이 불편하잖아.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너희는 너희끼리 살라고 하지. 며느리랑 사는 건 또 다르지. 딸하고 다르지. (송.., 남, 70세)

자식들은 중학교 때부터 밖으로 돌더니 지금은 뭐하고 사는 지도 잘 몰라.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결혼은 안했고. 개들도 사는 게 힘들어 보여서 맘이 안 좋지. 뭐 하고 사는지 몰라. 말도 안하고. (집세를 올려 줘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말도 못 해 봤어. 1-200만원 정도 올려 달라고 할 텐데 개들이 어떻게 해주겠어. 답답해. 얘기는 해보기는 해보겠는데 내 생각에 안 될 거 같아. 개들이 뭐 해줄 수 있겠나..(이.., 남, 70)

노인들은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마다하지는 않지만 당연하게 여기거나 요구하지 않고 차라리 포기한다. 이것은 자녀와 거리를 둬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보여진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전의 노인들과는 달리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나 가려고 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하고 자부심을 나타낸다.

자녀와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동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자녀와의 관계가 노인의 생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족과의 동거로 인해서 해야만 하는 가정일이나 손자녀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활동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인다.

사실 내가 첫 손자 볼 때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개 낳기 전에는, 애 보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활동적이었는데 나가 다니면서 온 갖가지 일을 다 하다가, 애를 딱 데리고 왔는데 2년 동안 막 우울증 비슷하게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증도 오고 그랬어요. 신경도 무지 예민해지고. 이러다 정신과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랬다니까. 답답하고 못 나가고 애랑 둘이 집안에서 씨름할래니까. 하루 종일 개하고 둘이서만. 남편도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집에만 갇히니까..(윤.., 여, 66세)

(90세 노모를 부양하는 경우) 이제는 설거지 청소도 힘들어. 누구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 나중에 하자. 그러지. 어머니 손톱 잘라주는 것도 힘들어. 손톱이 길었는데 어제 밤에 내꺼만 자르고 어머니 꺼는 다음에 잘라준다고 했다니까. 어머니 손톱, 발톱 잘라주고 목욕이라도 해주면 좋겠어. (정.., 여, 71세)

그런데 자녀관계와는 달리 부부관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노인들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한 노년기의 모습에서 등장하는 것이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여가/취미활동을 하는 것을 꼽고 있다. 그리고 노년기에 들어 이전 보다 부부관계가 좋아진 노인들의 경우에 자기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나타냈다. 반면, 노년기에 들어서 상대 배우자의 문제로 갈등을 느낄 때는 만족도의 훼손을 털어놓았다. 또한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재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러한 점들은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부부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혼자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해봤지만 이제 갈라선다고 뭐 뽀족한 수가 나겠어? 좋은 게 뭐 있어. 그러저럭 조금 살다 가는거지. 근데 여자라고 뭐 바라잖아. 좀 쓰고 싶을 때 바랄 때가 있는데, 집에만 있는다고 해도 돈 쓸 일이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그럴 때 할머니가 답답하지. 내가 답답한 거 할머니한테 말 안 해. 자기도 답답하겠지. 나를 보면.. 같이 앉아 있으면 말하다 싸우기만 해. 다투기만 해. 같이 안 있어. 그러니까 나가. 나가는 게 편해. 답답하고 심심하면 나가는 게 나야. 전철타고 썩 갔다가 시간 보내고 걸어다니고 그러는 게 나야. (이.., 남, 70세)

할머니가 죽은 지 오래 돼서 뭐 이제 잊어버렸어. 어땠는지. 살았으면 71살이었을꺼야. 마누라 없으니 근데 불편하지. 며느리한테 뭐 같은 거 말하기에도 어렵지. 아플 때나 뭐 이럴 때 시키기도 어렵고 부담되지. 어디 아프니 어머니 말하기 어렵지. 괴로워도 잘 말을 안 하지. (배.., 남, 76세)

나이 먹어서 지금까지 같이 살아 온 부부가 되었던 도중에 만났든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가 되었던 나이가 들어서 만나서 부부가 되었던 찢룩거리며 다녀도 들이 손잡고 다니는 노인부부 모습이 젤로 부러워. 내가 젊어서 혼자가 되어서 그런지 늦게까지 살아서 함께 다니는 것이 부럽고. 지금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만나고 싶어. 결혼도 좋고. 그러면 또 건강해 진다고 하더라구. 맘에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건강해진다대. (정.., 여, 71세)

한편, 자신의 생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노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현재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보여진다. 학력이나 경제적 상황이 나쁘더라도 일을 하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긍정적인 생활만족도를 나타낸다.

앞으로 20년은 더 살텐데 죽을 때까지 꿈지락거리고 살아야지. 사람은 먹고 일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야 해. 일 할 때가 좋아. 맘이 편해 노는 것 보다. 노는 건 지옥이야. 젊을 때부터 나는 정말 일만 했어. 미싱일이라는 게 (주문에)맞춰서 대야하니까 일만 했지. 그래서 그런지 몸에 배서 뭐라도 해야 할 꺼 같애. 일이 취미인데, 놀 면 사는 거 같지 않아. 일 안 하면. 복지관에 가서 수의 만들 때는 시간도 잘 가고 옷 하나씩 만드는 게 재미있지. (김.., 여, 66세)

돈 보다도 하루 하루 뭔가 하면서 보낼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손으로라도 뭐 좀 요래조래 하는 거 하고 싶어. 그런 거 있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야. 그런 게 있으면 여기(종묘공원) 안 나오지. 그게 더 좋지. 있다면. 난 즐거움이 없어. 웃음이 없는 사람이야. 별 사는 낙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뭐 잘 사는 노인에 관심이 없어. 누가 어떻게 사는지 알게 뭐여. 낙이 없어서 죽을 생각도 했어. (배., 남, 76세)

일단 자기가 소일거리가 하나는 있어야 돼. 뭐 모여서 장기도 두고 신문도 보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노인들이 많은 데 아무것도 할 꺼 없으니까 쭉그리고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 보다 취미를 갖고 몰두해야 해. 뭔가 움직여서 활동을 해야지. 안 그러면 더 추해지는 거지. 나이 들면 추해지는 데 그렇게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더 추해보이지. 난 그래서 노인정에 안가. 가면 뭐 해. 뭐 배울 거 하나 없는데. (송., 남, 70세)

정년퇴직하고 처음엔 참 기뻐어요.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너무 기뻐어요. 그래서 한 동안 잘 놀았어.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누가 부르지 않아도 가고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못 만나던 친척도 만나러 다니고 그러니까 좋더라구. 근데 그게 얼마 지나니까 그게 아니올시다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딜가나. 어디를 가나 걱정이 되더라구. 즐겁던 것이 걱정으로 변하더라구. (홍., 여, 75세)

그런데 유급노동에 있어서는 노인의 동기가 변수가 된다. 열악한 상황에 떠밀려 선택의 여지없이 비자발적으로 유급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떨어진다.

요즘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어. 아무 것도 없어. 신나는 일은 더 없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없어. 뭐가 있어야지 뭘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도 해볼 까, 뭘 새로운 일을 할 까 하는 거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해볼 까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 (이., 남, 70세)

반면, 다양한 활동들로 자신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며 주체적인 노인들의 경우에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과거 경험을 활용하여 노년기에도 능력을 발휘하는 노인들의 경우나 새롭게 배운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생활을 구성해나가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컸고 생활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

즐거울 때는 내가 뭘 새롭게 알았을 때, (한자교육)애들 가르쳤는데 잘 알아듣고 대답도 잘 할 때 희열을 느껴. 생활이 지루할 때는 없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런 적 없어. 다른 노인들은 우울하다고 그런다는데 나는 안 그래. (송., 남, 70세)

요즘엔 목회 일을 하고, 침 치료도 하고, 신학대에 가서 강의도 하고 치료도 하고, 여기 와서 봉사도 하고, 탁구도 치고,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배우고 그래요. 바빠요. 아침에 나와서

매일 10시에 들어가요. 내가 말하지. 적어도 삼십년을 더 사는 데 뭔가 가치창출을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고 그래야 괘시를 안 받지. 노인들이 다들 에헴하고 있는데 그걸 사회에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해. (서..., 남, 69세)

이렇게 자원봉사 하나까 즐거워. 아파죽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침 봐 주면 시원하다 하고 일어날 때면 즐겁지. 그러다가 벌써 8년이 훌쩍 지났네.....전철에 할 일 없이 맥없이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따분할 까. 아유 딱하다 그러지. 바깥 노인네들이 더 많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일거리도 없거든. 딱한 일이야.(홍..., 여, 75세)

이렇듯 심층면접 결과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인들의 기본 속성이나 인구사회적 변수, 자원체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세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노인들이 왜, 어떻게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그것이 노인의 노년기 의미와 생활만족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앞으로 면접 대상 인터뷰를 더 진행하면서 보다 깊이 있게 분석되어질 것이다.

##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각 노인들이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활동들을 구분하여 노인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노인집단의 활동은 현재 활발한 논쟁 중에 있는 생산적 고령화의 개념을 참고하여 영역을 구분하였다. 생산적 활동은 각 영역에 따라 참여하는 노인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유급노동은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노동경향이 노년기에도 이어져 남성노인이 많은 참여를 한다. 그 이외에 생산적 활동영역에서는 여성노인이 우세한 활동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활발한 적응력을 보이는 양상을 설명하게 해준다. 그리고 노인의 인적 자원은 노인의 생산적 활동 참여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유급노동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의 가족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급노동의 경우에는 가족요인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데 노인이 가족과 독립하여 유급노동을 통해 생활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일/가족돌봄 활동의 경우에는 가족변수가 매우 크고 밀접하게 작용하여 노년기에도 여전히 가족과의 관계가 유지되며 이 관계로 인해 노인들의 생활세계 구성 활동 양상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물적 자원은 유급노동 활동과 자기유지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다. 유급노동활동의 경우에는 부적(negative)인 방향으로 영향을 보이고, 자기유지활동의 경우에는 물적 자원을 많이 보유한 노인일수록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에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노인 인구학적 변수나 가족변수 자원변수들의 차원에서 분석되었다. 또 한 부분은 노인의 우울, 고독, 자기통제감 등 심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생활만족도를 분석하려는 연구가 있어왔다. 근래 들어서는 조금 더 나아가 노인의 활동 참여와 사회참여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과거 노인에 비해 점차로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두드러진 적극성을 보이는 노인집단의 변화에 따라 노인 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부분임은 분명해졌다. 노인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생산적 활동 영역 중 생활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자기유지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단체 활동 참여는 사회인구적 배경이 어떠한 자원체계가 어떠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년기에 들어서 여전히 수행하여야 하는 가정일과 가족돌봄 활동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 요인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러한 통계적 결과들은 실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에서도 확인된다. 자원봉사나 다양한 단체 활동, 복지관 교육 등을 통해 사회관계를 유지할 유지하는 노인들은 인터뷰에서 나름대로 활발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으며 자기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었다. 반면,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노인의 경우에는 자기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못했으며, 가정일과 손자녀 돌보는 일로 노년기에도 고달픈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심각한 생활만족도 저하를 경험했음을 들어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작업은 노년기에 생산적이라고 규정되는 활동들이 노인들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이며 이것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밝힘으로써 급격하게 변화 중에 있는 노인집단의 현실적합한 노년기 모습을 조명해 보는 시도였다고 본다. 그리고 노년기 이전 시기, 중장년층까지 생활의 주를 이루었던 공적영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물러났지만, 전통적 노년기에서 의미했던 사적영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중간 영역을 개발하는 노인의 생활세계 구성을 살펴보고, 한편으로는 자녀양육과 사회경제적 과업 달성이라는 책임을 털어버린 자유로운 노년기의 독특한 주체적 활동을 만들어 가는 노년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강철희, 김영범, 2001, 노령 노동자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일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7.
- 곽효문, 2002, 노인의 여가생활과 문화복지적 접근, 노인복지연구, vol.17.
-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vol.20.
- 김기태, 박봉길, 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 지역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 Vol.20, No.1.
- 김도환, 2001, 도시 노인의 가족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 11.
- 김동배, 2003, "노인의 소득창출과 연계한 능력개발 방안", 고령화 사회와 노인인력의 활성화 방안 발표 자료, 한국노년학회.
- 김미혜, 2001, 생산적 복지와 노인고용정책, 이대 사회과학연구논총, 7. pp.187-213.
- 김연희, 김기순, 2002,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vol.17.
- 김윤정, 2002, 회상을 통한 우리나라 여자노인들의 일생과 자아통합감, vol. 18.
- 김영범, 박준식, 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서울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vol 24.
- 김승곤, 2005,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인의 주관적 건강, 노인복지연구, vol.28.
- 김정순, 1989,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vol.1.
- 김진영, 2006,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2006년 전기 사회학대회 의료사회학분과 발표문.
- 김정석, 김익기, 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vol.20.
- 김형수, 2003, 노인부양의 한계와 생산적 고령화 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집, <참여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pp. 39-50.
- 나향진, 200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24.  
,2002,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18.
- 박민자, 손문금, 2005, 고령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덕성여대 사회과학연구, vol. 11.
- 박경숙, 2004, 생애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 한국사회학, vol. 38. no. 4.  
,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의암.  
,2002,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업종·직종에서의 분리현상", 노동정책연구 제2권 2호.  
,2001, "중장년기 종사상 지위와 은퇴과정의 다양성", 노동경제논집 제24권.



- ,2000,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구조와 고연령층의 취업생활”,노동경제논집 제24권 특별호.
- 박영례 외, 2005, 노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29.
- 방하남,신동균, 김동헌, 신현구, 2004,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 우해봉, 2001,한국노인의 사회계층별 건강 및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윤순덕, 한경혜, 2004, 농촌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 윤순덕, 2003,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가옥 외, 2004,노인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56(1).
- 이금룡, 2006,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26.
- 이기홍, 2005, 한국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한국노년학, 2005, vol.25. no.3.
- 이삼식, 2004, 노년기 가족환경 및 자원체계가 노인의 노동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 이호성, 2005, 도시노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vol. 25.
- 이형실, 1999, 농촌 부부가구노인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19, No.3.
- 장경섭, 2001, 압축적 근대성과 노인문제의 재인식: ‘신세대’로서의 노인, 가족과 문화 13(1).
- 장지연, 김대일, 신동균, 조준모, 조용만, 김정한, 2004, 고령화 시대의 노동정책과 고용정책 (II),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 장지연,2003, 고령화 시대의 노동정책과 고용정책(I),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 ,2003b, “ 고령근로자의 경제활동과 은퇴”, 한국노동연구원.
- , 2003c, 정년제의 문제와 대안, 노인복지연구, 19. 봄호.
- , 2000,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정경희 외, 200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5, 노인들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15.
- 정순돌, 2004, 저소득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 특성: 연결고리의 분석을 통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24
- 정순희, 2005, “노인의 생산활동 수준 및 관련변수의 분석: 한국과 캐나다 비교”,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5, No 2.
- 전혜정, 2003, 노년기 비공식적 지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23.
- , 2004, 한국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 <노인복지연구>, Vol. 26. 겨울호. pp 337-361.
- 조경옥, 2005, 여성노인의 건강 지위,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 27.

최정아, 서병숙, 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12, No.1.

한경혜, 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vol.24.

허준수, 2004,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24.

홍현방, 2005,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Vol. 29. 가을호. pp 203-235.

Bass et al., 1993,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iety, Westport, CT : Auburn House.

Blau, Francine D. 1998, "Trends in Well-being of American Women, 1970-1995".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 pp. 112-65.

Burkhauser, Richard V.,1980, The Early acceptance of Social Security : An Asset Maximization Approach ",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33.

Brubaker, T. H. 1990. Families in later life: A burgeoning research are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59-981.

Crimmins et al., 1999, Trends in Health and Ability to Work Among the Older Working-Age Population.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4(1): S31-S40.

Gershuny and Robinson, 1988, "Historical changes in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Demography 25, pp. 537-52.

Glass et al., 1995, Change in productive activity in late adulthood: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0 B(2).

Gustman & Steinmeier, 2002, "Social Security, Pensions and Retirement Behavior Within the Family," Dartmouth College Working Paper 02-05, May 2002.

House, James S.; Lantz, Paula M.; Herd, Pamela,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Aging and Health Over the Life Course: Evidence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From 1986 to 2001/2002 (Americans' Changing Lives Study)."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Oct 2005, 60B, 15 - 26.

Herzog, A.R., et al., 1989, Age differences in productive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ervices 44(4):s129.

Herzog, A.R., & Morgan, J.N.,1992,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values of productive activities. Research on Aging, 14(2), 169-198.

Rowe, J.W., & Kahn, R.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Hooyman & Kiyak, 1998, *Social gerontology*, MA: Allyn & Bacon, Inc.

McIntosh & Danigelis, 1995, Race, gender, and the relevance of productive activity for elder's affect.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0 B.

Pencavel, 1986, Labor supply of men: A survey. *Handbook of labor economics*, North-Holland: Elsevier  
Science.

Robinson and Godbey 1999,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Ross, Catherine E & Chia -Ling Wu, 1996, "Education, Age, and Cumulative Advatage in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104-120.

Zick and McCullough, 1991, "Trends in Married Couples' Time Use: Evidence From 1977-78 and  
1987-88". *Sex roles* 24, pp 459-87.